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Title: “20. Noah's deliverance – part 2”****Scripture: Genesis 8:13-19****Date preached: May 17<sup>th</sup> 2026****Scripture: Genesis 8:13-19**

**13 And it came to pass in the six hundred and first year, in the first *month*,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at the waters were dried up from the earth; and Noah removed the covering of the ark and looked, and indeed the surface of the ground was dry. 14 And in the second month, on the twenty-seventh day of the month, the earth was dried.**

**15 Then God spoke to Noah, saying, 16 “Go out of the ark, you and your wife, and your sons and your sons’ wives with you. 17 Bring out with you every living thing of all flesh that *is* with you: birds and cattle and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so that they may abound on the earth, and be fruitful and multiply on the earth.” 18 So Noah went out, and his sons and his wife and his sons’ wives with him. 19 Every animal, every creeping thing, every bird, *and* whatever creeps on the earth, according to their families, went out of the ark.**

**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히려 노아가 방주 무경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14 둘째 달 스무아홉날에 땅이 마랐더라**

**15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18 곧 19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20 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20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Review – The deluge part 2 – Genesis 8:1-12**

Today we are going to bring the epic story of the global flood to an end. But before we do let us take a few moments to review some of the highlights from last week. We looked at the first 12 verses of chapter 8.

The chapter begins with Noah, his household and all the animals still on the ark. In fact, they have been onboard for 157 days. In case you have forgotten let me briefly recap the flood chronology. They spent a week on the ark before the fountains of the deep and the water from above actually began to flow. There were then floating around for 150 days, or five months whilst the floodwaters raged all around them. I made a point of highlighting that the arks only purpose was to float. So presumably during this time the ark was carried wherever the wind and waves took it. Noah had been hoping to stop off in Hawaii but when they go there he found it covered in water.

I also told you that the flood was far from being a peaceful event. Some have tried to teach that the flood was a gentle, non-violent event. Aside from the fact that billions of people and animals drowned of course!

The reality was that it was cataclysmic. The tectonic plates of the earth were in motion which would have resulted in massive amounts of seismic activity. Volcanoes erupted and the planet was literally shaken to its core.

As a result of this the earth deep beneath the floodwaters was being reshaped and reconfigured. Eventually when the waters receded the post flood world would look very different to the one God originally created.

As you can imagine all this turmoil would have resulted in big waves and rough seas. Had surfing been a thing Noah could have been world champion. God as we saw in previous sermons had

designed the perfect vessel to survive these waves. The arks precise ratio dimensions of 6:1 (length to width) ensured that the ark was able to ride out the waves. Despite this Noah and his wife were constantly having to administer sea-sickness medication in the ark's sick bay. Perhaps the rough seas and stormy weather caused some concern for those on the ark. It would be entirely understandable that as the waves battered against the ark that those inside might be fearful. If you've ever been on a ship in rough weather it's a humbling experience. Maybe, just for the merest of moments they wondered whether God had forgotten about them. This was of course not the case.

Verse number one of chapter 8 tells us that God “remembered” Noah. I spen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last week unpacking exactly what this meant. In case you missed last week's message, or have forgotten it doesn't mean that God had literally forgotten Noah. God does not suffer with memory loss. Sadly, as we get older we often lose some of our cognitive function. But NOT God. God is omniscient. He knows all things and nothing ever slips His mind. So what exactly does it mean when Noah uses an anthropomorphism to describe God's recollection of Noah.

What it means is that God is once again purposefully choosing to act, work or intervene on Noah's behalf. He is bringing to mind the promises He made to Noah and beginning to fulfil them. God was not only remembering Noah, but also all the animals that were with Him. They were important to him too, and He had determined to save them along with Noah and His family.

The floodwaters have accomplished their purpose. All the living things that were on the planet are now dead. So God makes a wind that will help in the evaporation of the water. This process is sped up when God restrains the rain from heaven, and stops altogether the fountains of the deep. We are now entering the long drying out process. It was a process that would take a further 150 days or 5 months to complete.

On the 17<sup>th</sup> day of the seventh month the ark came to its final resting place. This was 5 months after the flood began. The ark ran aground somewhere on the mountains of Ararat. This general description means that we cannot be certain where exactly the ark stopped. Some misread what the bible tells us and assume that it is referring to Mount Ararat located in the far east of modern day Turkey. It is possible that it was Mount Ararat, but we certainly cannot say with any certainty. I spoke last time about some of the searches that have been undertaken to find the ark's remains. I remain sceptical that we will ever find the remains of Noah's ark.

After a further 73 days the tops of the nearby mountains become visible. What a wonderful sight it must have been to see these rocky peaks protruding from the water. This serves as the cue for Noah to conduct an experiment. He will send out some birds to assess the full extent of the flood. The first bird released is a raven. A carnivorous scavenger that thrives in harsh conditions. The bird flies to and fro and probably does not return to the ark. From this Noah can ascertain that things are improving and the raven was able to survive. Next Noah sends a dove. It flies around for a while before returning to the ark.

A week later he tries again and this time the dove returns with a freshly plucked olive leaf.

This informs Noah that trees are once again growing but that the environment remains somewhat hostile. After patiently waiting for a further week Noah sends out a third dove. This final dove does not return. He now knows that the environment is becoming much more welcoming. Soon they will be able to leave the ark. An event that was no doubt greatly anticipated by all. However as with all things with God the timing is important. Noah must not be too hasty and instead allow God's timing to dictate when things occur.

We will look today at God's command To Noah and the animals to leave the ark.

오늘은 대홍수라는 장엄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8 장 1- 12 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8 장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에 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방주에서 이미 157 일 을 보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대홍수의 연대기를 간단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들이 방주에 타고 일주일 후에 깊은 샘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50 일 즉 5 개월 동안 홍수가 몰아치는 동안 방주는 표류했습니다. 방주의 유일한 목적은 물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주는 바람과 파도가 치는 대로 떠다녔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와이에 잠시 들르고 싶었지만 그곳은 이미 물에 잠겼습니다.

대홍수는 결코 평화로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홍수가 잔잔하고 격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익사했었는데도 말이죠.

실제로 홍수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지구의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고, 화산이 폭발했고 지구는 말 그대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홍수 아래 깊이 잠겼던 땅은 형태가 바뀌고 재구성되었습니다. 결국 물이 빠진 후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이러한 대격변은 거대한 파도와 거친 바다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만약 서핑을 했다면 노아가 세계 챔피언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친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완벽한 배를 만드셨습니다. 방주의 정확한 6:1 비율(길이 대 너비)은 방주가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아내는 방주 안의 병실에서 끊임없이 뱃멀미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우로 인해 방주 안 승객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파도가 방주를 강타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친 날씨에 배를 타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해지는 경험입니다. 아마도 아주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8 장 1 절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언급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노아를 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상실하지 않으십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의인화하여 묘사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를 위해 행동하시고, 일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들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소중했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줄어들도록 바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시고 깊은 곳의 샘들을 완전히 막아 이 과정을 가속하십니다. 이제 물이 줄어드는 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150 일 즉 5 개월이 더 걸릴 것입니다.

일곱째 달 17 일에 방주는 최종 안식처에 도착했습니다. 홍수의 물이 줄기 시작된 지 5 개월 만이었습니다. 방주는 아리랏 산 언덕기에 머물렀지만, 그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여 오늘날 터키 극동 지역에 있는 아리랏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리랏 산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는 모릅니다. 지난번에 방주의 잔해를 찾기 위한 여러 탐사 활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날 과연 노아의 방주 잔해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로부터 73 일이 지나자 근처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로 솟아오른 이 바위 산봉우리들이 얼마나 멋진 광

경이었을까요. 이제 노아는 실험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홍수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새들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보낸 새는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육식성 청소부 새로 축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방주 안팎을 날아다녔지만 아마도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아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며 까마귀가 살아남았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아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잠시 날아다니다가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고 이번에는 비둘기가 갓 탄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나무들이 다시 자라고 있지만 환경이 여전히 척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일주일을 기다린 후,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 마지막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아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곧 방주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긴절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때가 중요했습니다. 노아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물들에게 방주를 떠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 보겠습니다.

**13 And it came to pass in the six hundred and first year, in the first month,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at the waters were dried up from the earth; and Noah removed the covering of the ark and looked, and indeed the surface of the ground was dry.**

If you are keeping track this is the fourth time a specific date is given to us in the timeline of the flood account. You might at this point be wondering what purpose this information serves. Does it really matter the exact year, month or day. Perhaps not, but as I have said before the inclusion of this detail is deliberate and intentional. It serves to remind us that what we are reading is a real historic event. We are not reading a made up flood legend. As I have told you before there are numerous flood legends from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in fact over 600 from every continent on earth. Just for fun I thought you might like to hear the account from the Lolo people (now Yi) in south-western China. As I recount their legend I want you to listen out for the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the all important omissions when compared to the biblical account. Are you sitting comfortably? Then I'll begin.

*In primeval times, men were wicked. The patriarch Tse-gu-dzih sent a messenger down to earth, asking for some flesh and blood from a mortal. Only one man, Du-mu, complied. In wrath, Tse-gu-dzih locked the rain-gates, and the waters mounted to the sky. Du-mu was saved in a log hollowed out of a Pieris tree, together with his four sons and otters, wild ducks, and lampreys. The civilized peoples who can write are descended from the sons; the ignorant races are descendants of wooden figures whom Du-mu constructed after the deluge.*

(Gaster, Theodor H. **Myth, Legend, and Custom in the Old Testament**, Harper & Row, New York, 1969)

There are some notabl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the biblical account. The people living at that time were wicked. Check. The god or patriarch in the story was not pleased. Check. He presumably sought a peace offering that would demonstrate that the people were sorry and wished to make amends. They refused to acknowledge their wrongdoing. A partial check. God wanted the people to repent of their wickedness and live in a righteous way. The “god” of the legend found only one man, in this case Du-Mu who complied and who made the sacrifice. Check. God found only one righteous man in Noah. Du-Mu was deemed worthy to be saved. His salvation like Noah's came in a “wooden vessel.” In Du-Mu's case in a hollowed out log. He was accompanied by his four sons but there is no mention of any women. I'm a little confused as to how future generations could come from them.

The animal companions in the Chinese legend are I have to say an odd bunch. Perhaps they hold a special meaning in Lolo culture of which I am unaware. I love otters so I'm glad to see they got in the log, wild ducks I can also understand. They're good to eat. But I don't know why you'd pick voracious blood sucking eels to join you. I can think of more pleasant travelling companions.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허무맹롱한 이야기 속에 약간의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Let's get back to the true flood account. We read here **that in the six hundred and first year, in the first month,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at the waters were dried up from the earth.** This is now 23 days after the third dove was released. This you will recall was the dove that did not return. It was able to survive in the wild and therefore did not need to come back to the security of the ark.

Noah boarded the ark two months after his 600<sup>th</sup> birthday. It is now almost a year later. That is a long time to be cooped up on a wooden boat. But finally the waters have now dried up from the earth.

Now just because the waters have gone does not mean that the ground is now dry and able to be walked upon. In the UK we often have floods along with prolonged spells of rain. The rain may stop and the floodwaters may dissipate but the ground remains water-logged for a long time afterward. This is what we are to imagine here. You cannot walk over boggy ground like this very easily. It soon cuts up and becomes a muddy quagmire. This would have been a danger especially to the smaller animals. Lest we forget that there are approximately 16,000 eager animals waiting to disembark. It would totally have defeated God's purpose to have the small animals like shrews and mice survive the flood only to get trampled to death in the mud!

Next we read that Noah removed the covering from the ark. There was no mention of this in the descriptions given before. As I said when I spoke about the details God gave Noah we are only getting the bare-bones. We should probably assume that God gave Noah a much more comprehensive set of building instructions. God clearly didn't think that we needed these so we are only given a very general description of what the ark looked like.

This means that as regards what the "covering" was we are left to speculate. I'm picturing some kind of giant awning that covered the ark and allowed the majority of the rain water to run off the sides. In camping terms the equivalent of the "rain-fly" or "flysheets" that covers a tent. The covering was very practical in the rain but it presumably limited what could be seen. Removing this covering allowed Noah to gaze out and visually inspect the surrounding land. It was drying nicely but it was still not quite the time for them to leave the ark.

이제 진짜 홍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은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건헐**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낸 지 23 일 후입니다. 이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주 밖에서 생존할 수 있었기에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600 번째 생일로부터 두 달 후에 방주에 올랐으니까 거의 1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 시간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땅에서 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물이 건헐었다고 해서 땅이 완전히 말라 밟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장기간의 비와 함께 홍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비가 그치고 홍수는 가리앉아도 땅은 오랫동안 물에 젖어 질척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질퍽한 땅은 걷기가 힘듭니다. 금세 갈라지고 진흙탕이 됩니다. 특히 작은 동물들은 위험합니다. 약 16,000 마리의 동물들이 방주에서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쥐나 땃쥐 같은 작은 동물들이 홍수에서 살아났지만 진흙탕에 파묻혀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겠죠.

다음으로 노아가 방주 뚜껑 covering 을 열었다고 언급합니다. 이전에는 이 뚜껑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세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그저 뼈대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훨씬 더 자세한 지침을 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만 남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덮개"가 무엇이었던지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방주 전체를 덮는 거대한 차양막 같은 것을 상상해 봅니다. 빗물이 대부분 옆으로 흘러내리도록 설계된 것이죠. 캠핑 용어로 말하자면 텐트를 덮는 "레인플라이"나 "플라이시트"와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이 덮개는 매우 실용적이었지만, 아마도 비갈 풍경을 보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이 덮개를 걷어내고 나서야 노아는 바깥을 내다보며 주변 땅을 살펴볼 수 있었겠죠. 땅은 잘 마르고 있었지만, 아직 방주를 떠날 때는 아니었습니다.



0 일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5 Then God spoke to Noah, saying, 16 “Go out of the ark, you and your wife, and your sons and your sons’ wives with you.**

We see here some beautiful symmetry. Noah and his family had entered the ark on God's command. Now they exit the ark on God's command. The long wait is over. God breaks the pregnant silence to tell Noah that it is safe for him and his household to leave. Why do you suppose God goes to the trouble of listing all the people on the ark? He could simply have told Noah to take his “family” off the ark. It is because all of these souls were precious and important to God. We don't sadly know any of the women's names. But let us not think that because they go unnamed it diminishes in any way their importance. They had a vital role to play in repopulating the earth. Without them, we wouldn't be here.

Noah here, and actually throughout the whole flood account models for us the kind of obedience that God desires. God will often call or position us in a place of service. What He wants from us is our diligent and faithful obedience. To uncomplainingly do the jobs He has assigned us. This might be a role within the church, at our companies or within the family home. He wants us to get on with the task before us and not be constantly seeking validation from Him or others.

Let me use my own situation as an example. The English ministry we have here is small. It fluctuates a little here and there but remains fairly constant. There is a core or regulars with a few others on the fringes. I've been the pastor here for 10 years. How the time has flown. So some in my position might think it was time to move on. I might be tempted to think that with my qualifications and now with ten years of experience I could move to bigger more prestigious church. There might be a mega church in Seoul that would hire me. If that is God's will then obviously I will obey. However I believe that God has called me to this particular ministry and given me you as my sheep to shepherd. All that God wants from me is my willing and faithful obedience.

I don't need to constantly be asking God if I'm where I should be and whether I am doing what He wants. So just like with Noah I will wait until I hear from the Lord.

Anyway back to Noah.

God had not spoken to him since telling him to get into the ark. So for a little over a year there had been no communication from the Lord. Noah was simply left to trust in God and have faith that God's plan was unfolding and that he was a part of it. Finally God speaks and gives him the good news.

**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여기서 아름다운 대칭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서 나옵니다. 기다린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도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방주에 탄 모든 사람을 각각 나열하셨을까요? 단순히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이 모든 영혼들이 하  
□□□□□□ □□□□ □□□□□□.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자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구를 다시 채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노아는 여기서, 그리고 사실 홍수 이야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면함과 충실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불평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역할을 맡든 간에 주어진 일에 충실히 임하고  
□□□□□□□□ □□ □□□□ □□ □□□□□□ □□□ □□□ □□□□□□ .

제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곳 영어 사역은 규모가 작습니다. 참석자 수가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핵심적인 고정 참석자들과 몇몇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0 년 동안 목사로 섬겨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자력과 10 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더 크고 명망 있는 교회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저를 고용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제가 돌보아야 할 양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까이 그리고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 □□□□,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처럼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다시 노아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신 후로 침묵하셨습니다.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신도 그 계획의 일부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17 Bring out with you every living thing of all flesh that is with you: birds and cattle and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so that they may abound on the earth, and be fruitful and multiply on the earth.”**

Naturally it isn't only the human beings who are to leave the ark. All of the creatures with whom they have shared this space are also to go. We have speculated in previous sermons as to what state the animals were in during the time on the ark. It's possible that God put them into a state of hibernation (winter sleep). This makes good sense especially for the larger animals. Being enclosed for long periods without the opportunity to exercise or properly stretch their limbs is hard for many creatures. It's always depressing to see animals in a zoo pacing back and forth in a state of extreme boredom. Were the animals on the ark bored or frustrated?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the “rooms” inside the ark were designed with particular animals in mind. Perhaps there was space for animals to run around or ladders for the monkeys to climb. Despite this I'm sure that all the creatures who had been on the ark for over 370 days were eager to get out and to cavort in the fresh air. The green grass outside looked mightily inviting.

God then tells Noah about His plans for all the animals. The reason they were preserved on the ark is so that they can go on to reproduce and once again fill the earth. Once they climb down the ramp and leave the ark they are to go out into the world and have lots of babies. Initially they would have found a place to live in and around the region of Ararat. But over time, probably centuries they would have spread out further and filled the earth. Henry Morris in his book “The Genesis Record” speculates that during the ice age that began shortly after the deluge there were numerous land bridges connecting the continents. You would have been able to travel all the way from what is now Europe over into the Americas. Think of the money you'd save on plane tickets. This allowed animals to cross into what is now the Americas and also into New Guinea and Australia. The ice age lasted for several centuries so even the slower lumbering animals had time to amble across.

Once the ice age ended these land bridges disappeared under the sea and thus these animals were effectively cut off. You are probably wondering how we got from this scenario to all the different animal species we see today.

To answer this I need to talk about **speciation**. Speciation refers to how we see change and variation occur within the same kind of animal. As we saw when we looked at the animals that came onto the ark a created kind is broadly equivalent to the level of “family” in the modern classification system. Basically we are talking about animals that can in theory at least interbreed. A lion and a tiger are both members of the cat family (Felidae) and can interbreed. This does not happen naturally in the wild because they don't live in the same area.

So Noah probably brought two “wolf like” creatures onto the ark. From these initial two canid kinds we would eventually arrive at jackals, coyotes, dingoes, foxes and domesticated dogs. What we are really speaking about then is the gradual process of microevolution (minor changes within a kind).

As these canids adapted or adjusted to their new environments certain traits became more favourable. Canids living in colder climates required longer fur. Therefore shorter haired dogs either

moved away or perished. The genetics of longer haired dogs prevailed.

Canids living in hotter areas suffered if their hair was too long and thick. So over time shorter haired dogs survived and their longer haired cousins died out. The key thing to remember is this. Short or long haired they still always remained dogs. God never allowed for macro-evolution which refers to one species eventually becoming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A fish can never change over time to become a four legged mammal.

Anyway we are getting a little ahead of ourselves. At this moment in time the animals are still processing down the gang plank.

It's worth taking a moment to talk about what the post flood world might have been like.

The flood had devastated the earth. Noah and the animals stepped into a forbidding world. The animals and plants from the previous world were dead and had been buried under thousands of feet of sand and mud. New plants and trees were still struggling to re-establish themselves across the barren expanse of earth. The earth not only looked different but there had also been major changes to the climate. The ecosystem had changed. The once universal tropical climate was now gone. The earth was now prone to extreme temperature fluctuations. It was also now exposed to rain, wind, ice and snow. In certain areas the large forests which had once dominated the landscape became grassland and at around 30 degrees north and south of the equator deserts formed. These changes of course were not immediate. But they would over time become part of the post flood world.

These changes meant that some animals went extinct. Included in this group were many of the larger dinosaurs species. As large reptiles they were ill-suited to cold weather. Rather like crocodiles and alligators today could not survive in Scandinavia.

It was also the case that the supersized varieties of certain creatures also vanished. Did you know that there used to be a giant dragonfly called Meganeura.

It was the largest flying insect on record with a body length of up to 38 cm and a wingspan longer than many birds. What happened to these amazing creatures? Well scientist think that they could not adapt to the climate change brought about by the global flood. In particular the lower levels of oxygen in the atmosphere did for them. It's a great shame because it would be amazing to see these large airborne predators flying around today.

Let us conclude today's study by looking at the following two verses.

### **17 나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 곧 □□ 가축과 땅에 가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물론 방주를 떠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동물들이 어떤 상태였을지 추측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면(겨울잠) □□□□ 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큰 동물들에게는 이것이 티당해 보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몸을 제대로 뻗지도 못한 채 방주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은 많은 동물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극히 지루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방주 안의 동물들도 지루하거나 답답했을까요? 방주 안의 "방" 들이 특정 동물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동물들이 뛰어다닐 공간이나 원숭이들이 타고 놀 사다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370 일 넘게 방주 안에서 지나야 했던 모든 생물들은 비같이 신선한 공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방주 밖의 초원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동물들을 위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이 방주에 보존된 이유는 번식하여 다시 땅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내려온 동물들은 세상으로 나가 많은 새끼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리랏 산 근방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도 수 세기가 지나면서 동물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 땅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헨리 모리스는 그의 저서 "창세기 기록 The Genesis Record"에서 대홍수 직후 시작된 빙하기 동안 대륙들을 연결하는 수많은 통로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지금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행기표 값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육로 덕분에 동물들은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뉴기니와 호주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빙하기는 수 세기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has employed this technique throughout the flood narrative to repeatedly stress the faithful obedience of Noah. So the take-away here is that once again Noah listened and then obeyed God. Upon receiving God's command Noah, his entire household and all the animals left the ark and entered the post flood world.

How we might wonder did Noah and his family feel at this time. They left the confined safety and security of the ark and stepped onto a vast and empty earth. In just a year everything had changed.

The towns and cities that had once dotted the landscape were gone. Any signs of human activity had also been obliterated.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they left the ark feeling some degree of trepidation or apprehension. God had placed a huge burden upon them. They were tasked with rebuilding and repopulating the earth.

I also want you to note what we are told, or might infer about the animal's exit from the ark. It certainly appears as if all the animals left in an orderly and controlled fashion. We might assume that Noah carefully released them in a staged manner so as to prevent a stampede. He was, as we have previously established a wise and intelligent man. He had 600 years of experience to draw from! But I don't think he was an expert animal handler. Or that he had Dr Doolittle skills that enabled him to talk to the animals. I rather think that the orderly exit of all the creatures points to divine intervention. God had brought the animals to Noah, had preserved them through the flood and now was ensuring they could safely leave to fulfil their duty to be fruitful and multiply.

It's fun to try and imagine the scene. That huge boat resting in the mountains and all those animals trooping off. It must have been quite a sight.

If you are ever feeling a little sad or melancholy let me direct you to a certain kind of video available on YouTube. I've seen several variations but they are all most entertaining. I am talking about videos showing cows who after the winter (6 months) in a barn are being released out onto the grass. As soon as the gate to the field is open off they go. Cavorting around and kicking up their legs. Their joy is self-evident. From the dull concrete confines of the barn to grass and sunny skies.

I'm sure the animals that had been enclosed for over a year in the ark felt this same kind of joy. Finally, they were free to run, sniff, dig, climb, frolic and do all the other things animals do.

Moses also tells us that they left as “families.” This word was not used when the animals entered the ark. They came into the ark either as pairs or as seven individuals. They leave however as families. This strongly suggests, although it is not stated explicitly that there had been a degree of reproduction taking place during their time on the ark. I suppose there wasn't much to do during that long voyage.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is would have helped speed up the process of refilling the earth after the flood had ended. Two rabbits entered the ark and 75 exited. Are you ready for the useless fact of the day.

A female domestic cat can become pregnant as early as five months of age. During a year a cat can have up to four litters of kittens. The number of kittens varies but the average is four kittens per litter. So taking four kittens as the average and assuming four litters the two cats on the ark may have produced 16 kittens. See, you've learned something interesting and useful.

And so the account of the global flood comes to an end. The story of Noah and the flood is without question one of the most profound narratives found in the Bible. It should never be a story that we quickly read through without pausing to really think about the full implications. I'm afraid that it is sometimes just read as a fun little story about Noah riding on an ark with some animals. As I said in a previous sermon it is a story we all learned back in Sunday school. We were shown silly pictures of Noah on a ridiculously small boat with giraffe's head sticking out of the windows.

I'm quite sure that no Sunday school teachers ever sat their children down and said to them something along the following lines,

“Today children we are going to learn about how God wiped out billions of wicked men, women and children by drowning them. Oh, he also blotted out all the animals too.”

That is a little harsh, but it is the reality. A righteous God passed divine judgment on a wicked

generation who rejected Him. It should therefore be read and thought about in a serious and sober way.

So as we close the flood account let's think about some of the lessons we can learn.

**18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종류 families 대로 방주에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모세가 이미 말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아 이야기에는 반복이 꽤 많습니다. 모세는 홍수 이야기 전체에 걸쳐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여 노아의 충실한 순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온 가족과 모든 동물들과 함께 방주를 떠나 홍수가 물러간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안전하고 편했던 방주를 떠나 공황하고 황폐해진 땅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단 1 년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한때 온 땅을 채웠던 마을과 도시들 그리고 인간들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방주를 떠날 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큼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땅을 재건하고 다시 사람들로 채워야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

또한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에 대한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모든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방주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가 동물들이 떼를 지어 뛰쳐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순서대로 풀어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600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물 조련 전문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은 닥터 돌리틀처럼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질서정연하게 방주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에게 데려오셨고, 홍수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이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방주를 떠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 □□ □□□ □□ □□□□□□ □□ □□□** 습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특정 영상을 추천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영상을 봤지만 모두 아주 재미있었어요. 겨울(6 개월)을 헛간에서 보낸 소들이 풀밭으로 풀러나는 영상들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소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앞발을 차올렸어요. 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답답한 콘크리트 헛간에서 풀밭과 햇 **□ □□□ □□ □□□ □□□□□□**. 저는 방주 안에서 1 년 넘게 갇혀 있던 동물들도 똑같은 기쁨을 느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유롭게 뛰놀고, **□□ □□** 땅을 파고, 기어오르고, 장난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모세는 또한 동물들이 "종류 families "대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 families 는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는 **□□□□□□□□□□**. 동물들은 쌍으로 또는 일곱 마리씩 방주에 들어갔지만 **□□□□ □□□□□ □□□□□□**.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번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홍수로 인해 떠다니는 동안 그다지 할 일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홍수가 끝난 후 땅이 다시 동물들로 채워지는 과정을 가속화했을 것입니다. 토끼 두 마리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75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쓸모없는 상식 하 **□ □□□□□□□□□**?

암컷 집고양이는 생후 5 개월부터 임신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1 년에 최대 네 번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 는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번에 네 마리를 낳습니다. 따라서 새끼 네 마리라고 가정하고 네 번 낳았다고 가정하면 방주에 탄 두 마리의 고양이는 총 16 마리의 새끼를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고 유용한 사실을 하나 배웠죠?

이렇게 전 세계적인 홍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의 모든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쓱 읽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그저 노아가 동물들과 함께 방주를 타고 가는 재미있는 내용으로만 여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 모두가 배웁니다. 창문 밖으로 기린 머리가 삐죽 나와 있고, 터무니없이 작은 배에 탄 노아의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보여주곤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얹혀놓고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얘들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악한 남녀노소 수십억 명을 물에 잠기게 해서 멸망시키신 이야기를 배울 거야. 아,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싹 다 없애버리셨단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부한 악한 세대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진지하고 엄숙하게 읽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five lessons for us to learn from the flood account.

홍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섯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 **1 It teaches us about the seriousness of sin**

The story of Noah and the flood teaches us a great deal about the nature of God and of humanit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in. God is pure and holy and only able to do good. We, by contrast have inherited a sin nature. This means we sin and constantly do wicked things.

In so many ways all of us reject the good that God demands and instead go our own way. We think we know best and as a consequence reject Him choosing to live in a way that seems right to us. The consequence for living in rebellion against God is death. There is nothing unfair or unjust in this. God as the creator is able to set whatever laws He wishes.

We all accept that in our daily lives there are laws. These laws are set by governments advised by legal experts. The consequences for breaking them are that we face punishment.

If we exceed the speed limit we may be fined or lose the right to drive. If we murder someone we face a lengthy stay in prison or in some places the death penalty. No one believes that law-breakers should be able to go free without paying for their crimes. In fact, most of us want swift and harsh punishments for wrong-doers. God's judgment against the people of Noah's day was just and fair. They were wholly wicked and evil. They were rightly awarded the sentence of death.

Through this we learn the very important lesson that sin is deadly serious. One of Satan's favourite tactics is to try and minimize sin. To make us believe that sinning is not that big a deal. Sadly many have bought into his lies and think that “small” sins are not a very important issue. God will just wave them away without comment. Don't be mistaken. Sin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As with all law-breaking there are consequences. Therefore because God takes it seriously so should we.

What we might ask was it that caused the population of Noah's day to reject God's word and perish? I think we can sum it up very simply. It was complacency. They were so preoccupied with their everyday lives that they were unwilling to even contemplate the thought that God might act. They were so busy that they failed to heed the warning. Amazingly enough all these years later the world is still the same. Now one has learned from this example. People are still complacently going on with their lives ignoring God and simply assuming that He won't judge them for their sin. Let us not be under any illusion. God will judge sin.

#### **1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죄와 관련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거룩하시며 오직 선한 일만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방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사는 삶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assured that though we may suffer and even perish for our faith God is with us and will save us.

### **3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99.9%가 악하고 타락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는 악이 만연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뜻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대적인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 **4 It teaches us that God provides and protects**

Another valuable lesson we can learn from the flood account can be drawn from the fact that God provides provision and protection for those who are faithful to Him. Note that wording very carefully. It is God who provides. Our salvation only ever comes through God and Him alone. In Noah's case God instructed him in how to build an ark that would keep his family and the animals above the floodwaters. There was only one ark. Just one vessel through which the chosen people and animals could be saved.

In many ways, the ark prefigures the salvation offered through Jesus Christ. Just as Noah and his family were saved from the flood by entering the ark, so too are believers saved from the judgment of sin by placing their faith in Jesus. As with the ark there is only one means of being saved. It is through faith in Christ alone that we are saved.

### **4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가르쳐 줍니다**

홍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귀중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분께 신실한 자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노아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할 방주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방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방주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 **5 It teaches us that God's judgement is still to come**

The story of Noah and the flood also has an eschatological dimension. Jesus Himself refers to the days of Noah as a foreshadowing of the end times,

**37 But as the days of Noah were, so also will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38 For as in the days before the flood,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ah entered the ark, 39 and did not know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so also will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Matthew 24:37-39).**

This comparison serves as a warning and a call to vigilance. It reminds us that just as the flood came suddenly and unexpectedly to those who ignored the warnings so too will the return of Christ.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e flood in the story of Noah is multifaceted. It serves as a powerful reminder of the consequences of sin and the seriousness of divine judgment. At the same time, it highlights God's grace and mercy, offering a message of hope and renewal. When we put our faith in God all is not lost. The narrative challenges us to live responsibly, to seek righteousness,

and to place our trust in God's provision. Ultimately, the story of Noah points us to the greater salvation found in Jesus Christ. It is only through Him that we can be saved.

### **5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줍니다**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 시대를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로 언급 하셨습니다.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사집 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37-39)**

이러한 비교는 경고이자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이들에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홍수가 닥쳤듯이,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그러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론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다면적인 뜻을 가집니다.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알깨워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하며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고,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도록 도전합니다. 궁극적으로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중대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